

〈일반논문〉

九曜의 羅睺信仰으로 풀어본 신라 處容 - 처용을 보는 또 하나의 시선 -

정진희*

〈목차〉

- I. 머리말
- II. 인도 구요신앙의 라후
- III. 처용의 설화와 전승기록
- IV. 九曜의 羅睺信仰으로 풀어본 신라의 處容
- V. 맺음말

[국문초록]

처용신앙과 인도 점성신앙인 구요의 라후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처용의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처용이 신라에 당도하였던 879년은 중국 불교의 구요신앙이라 할 수 있는 치성광여래 신앙이 한반도로 전래된 9세기 중후반과 시간차가 크지 않다. 왕의 명령에 의해 불교식으로 천재지변을 해소하는 처용설화의 내용은 라후신앙의 渡來 이전 불교 치성광여래 신앙이 신라에 전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신앙이 비록 한반도로 전파된 경로는 달랐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려 준다.

고려 가사 〈처용가〉에는 직접적으로 처용을 라후라 지칭하고 이름을 경계하며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돈을 태워 소재의식을 치르라는 의미를 내포한 구절이 있다. 이슬람 점성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신라 처용에 비해 고려 가사의 처용은 불교 경전에 소개된 라후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는 소재도량이 성행하였던 고려시대는 불교의 라후 소재법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악학궤범>에서 처용무 후반에 불보살을 소칭하는 부분이 삽입된 이유 역시 사라진 고려 소재도량의 잔재로 사료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 민속놀이인 제웅치기도 불교에서 구요가 사라진 이후 민간의 세시풍습으로 전승된 처용신앙의 흔적이다.

한반도의 구요는 시대를 따라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처용의 전설과 전승기록을 통해 구요는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명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처용의 정체성에 대한 또 하나의 시선으로 서역 점성신앙인 구요의 라후를 통해 처용설화를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918년 후고구려 동주 발삼사에 있던 치성광여래와 구요 소상의 존재와 924년 왕건에 의해 구요당이 창건되어진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처용, 라후, 구요, 점성술, 이슬람 천문학

I. 머리말

사람이 출생하였을 때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이 배치된 상황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개인 점성술은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를 거쳐 인도로 전해졌다.¹⁾ 인도에 전해진 헬레니즘 점성

1) 동아시아에서 天變이나 災異를 가지고 국가적인 명운을 점치는 국가점성술에 대

술은 7개의 행성에 羅睺와 計都라는 상상속의 별을 더해 9개의 별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九曜信仰이라는 새로운 점성신앙으로 변모하였다.²⁾ 중국으로 전해진 구요신앙은 道·佛 모두에서 대중의 호응이 높았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중국 전통 성수신앙인 北極星신앙과 습합되며 熾盛光如來신앙으로 탈바꿈한다. 필자는 한반도로 전래된 구요 점성신앙의 사례를 불교 치성광여래 신앙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³⁾ 그 과정에서 처용신앙이 구요 가운데 라후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특히 이슬람 점성신앙의 특징이 엿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라후는 구요 가운데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라후(Rahu)를 말한다. 신라 처용설화를 전승한 고려가사 〈처용가〉에서 처용은 처음으로 ‘나후야비’라는 명칭으로 지칭된다. 이는 구요 신앙이 치성광여래라는 불교적인 루트 이외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전승되었음을 입증한다. 처용의 전승기록에는 사실과 허구가 더해져 있고 사회적 경험과 은유적 표현이 혼합되어 있다. 여기에 역사성과 문학성, 민속성, 예술성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⁴⁾ 이 가운데

비하여 서양 점성술은 행성의 위치에 의거하여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개인 점성술이 주로 행해졌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구요신앙은 개인 점성술에 해당한다(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 271쪽).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그리스 점성술은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하여 인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정진희,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7, 9~10쪽. 인도 고대 자이나교 성전에도 구요와 관련된 점성내용이 기록될 만큼 구요신앙의 기원은 오래되었다(서윤길,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994, 131쪽). 구요의 기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대 바라문들의 『리그베다(Rigveda)』나 민속에서부터 구요와 그에 대한 신앙은 일부 보인다. 고대 자이나교 聖典에도 구요와 관련된 점성의 내용이 들어 있어 구요 신앙의 기원은 꽤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진희, 『羅末麗初 熾盛光如來 信仰과 圖像의 傳來 - 〈高麗史〉기사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 2015. 참조.

4) 김경수,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연구사」, 『한자한문교육』 15, 2005, 216쪽. 처용과

처용의 실체를 라후와 연관 지어 풀이하였던 일련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논지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의 부족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⁵⁾ 본고에서는 처용설화와 그와 관련된 전승기록을 라후성신의 특징과 비교 고찰하여 한반도로 전래된 구요신앙의 사례를 밝혀보려 한다.

II. 인도 구요신앙과 라후

구요는 인도 고대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해약을 끼치는 아홉 종류의 신적인 존재로 등장한다.⁶⁾ 그에 반해 불교의

-
-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처용무와 관련된 무용학논문과 신라학과 고려가사로 남아있는 〈처용가〉를 다루는 국문학 논고를 포함하여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구 분야로 구분될 만큼 3천 건이 넘는 결과물이 발표되었다. 처용의 정체성은 日蝕神인 라후의 화신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울산지방의 호족설, 화랑 집단의 일원, 아라비아 상인설 등 다양하다. 처용의 실체와 관련된 연구사 정리는 김유미,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윤성현, 「〈처용가〉의 변전과 문화사적 의미」,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참조.
- 5) 학계에서 처용과 라후의 관련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던 연구자는 안확이었고 이후 양주동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하지만 양주동은 라후의 실체를 屋神이 아닌 석가세존의 아들인 '라후라'로 보았기 때문에 아내를 범한 여신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처용의 실체를 忍辱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며 박병채와 김형규 역시 같은 견해를 보였다.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92, 150~151쪽;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해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형규, 『고가요 주해』, 일조각, 1996 참조; 김경수,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연구사」, 225쪽;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전승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7~78쪽. 김수경은 '나후'란 곧 처용을 가리키는 말로 고려가요 〈처용가〉의 서두부분을 라후직성에게 천하태평의 공덕을 돌림으로 불길한 재난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한다.
- 6) 박종식·정승석, 「navagraha개념의 융합적 전개」, 『佛敎學報』 85, 2018, 166~177



도 1. Navagrahas(향 우측 2번째 라후) - India, 10세기 [39.37×74.3×11.43cm. San Diego Museum of Art]

구요는 천문현상과 관련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신으로 변모시켰다. 인도에서 구요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높아 조각과 회화 작품을 통해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간에게 惡材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던 라후와 계도는 토요와 함께 남인도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다(도 1). 구요신앙은 밀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멀리 중앙아메리카까지 그 신앙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구요의 아홉별 가운데 이 글에서 처용과 비교 고찰하고자 하는 별은 라후이다. 라후와 계도는 태양과 달의 궤도인 황도와 백도가 만나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지점인 북쪽노드(north node)와 남쪽 노드(south

쪽. 구요의 개념은 신화적인 관념에서 유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격으로의 위상이 아니라 천문현상과 연결되어 해석되었으며 병귀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허혜정, 「〈쿠쉬나베〉와 〈삼국유사〉를 통해 본 처용설화의 생성공간」, 『동서비교문화저널』 32, 2015, 381쪽. 일식인 라후는 페르시아 점성학에서 'rass'로 불리던 개(사자) '라후'이다. 일식을 가져오는 마적의 개로 '용의 머리'로도 불렸다. 질병과 불신을 상징하는 부정적 형상도 있다.

node)를 의미하는 ‘隱曜’이다.⁷⁾ 운명을 풀이하는 점성술 차트에서 라후와 계도는 어떤 행성과 합을 이루냐에 따라 길과 흉을 증폭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별로 여겨왔다. 인도 신화 乳海攪拌에 따르면 아수라의 수장이었던 라후는 신들의 음료인 암리타(Amrita)를 훔치려다가 해의 신 수리야와 달의 신 소마에게 들켰다. 해와 달의 신은 이 사실을 비슈누에게 알렸고 비슈누는 차크라를 날려 라후의 목을 베었다. 하지만 이미 불멸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암리타를 입술에 적신 라후는 죽지 않고 살아 머리는 라후가 되고 몸통은 계도로 나뉘어 불사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라후와 계도는 태양과 달에 원한을 품어 이들이 근처에 나타나면 삼켜버려 일식과 월식을 만들었다. 불교에 수용된 라후도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아수라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이야기는 팔리어로 쓰여진 相應部 경장인 『상윳따 니까야(Samyutta Nikāya)』에서 찾을 수 있다.⁸⁾

조각이나 회화로 표현되는 라후는 아수라였던 과거를 나타내듯 분노존의 모습에 얼굴만으로 혹은, 하체가 생략된 상반신으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도 2). 베딕 점성서의 라후는 난폭하고 자욱한 연기와 합

7) 달의 승교점인 북쪽노드는 인도 점성에서는 라후라 불리고 고대 유럽문헌에서는 용의 머리를 의미하는 caput Draconis 이며 티벳에서는 칼라그니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8) 태양의 신인 수리야(suriya)와 달의 신 찬디마(candima)는 아수라의 왕인 라후에게 붙잡히자 세존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도를 올린다. 이에 세존은 아수라의 왕 라후에게 수리야와 찬디마는 여래와 아라한에게 귀의했으니 이들을 풀어주라고 말한다. 수리야와 찬드라를 풀어준 라후는 아수라의 또 다른 왕인 웨빠찌띠가 왜 그들을 풀어주었는가? 하고 묻자 ‘세존의 계승을 듣고서도 만일 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머리가 일곱으로 조각났을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편안한 곳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Samyutta Nikaya』, sn 2.9 <Suriya Sutta>, <Candima Sutta>. <https://www.accesstoinsight.or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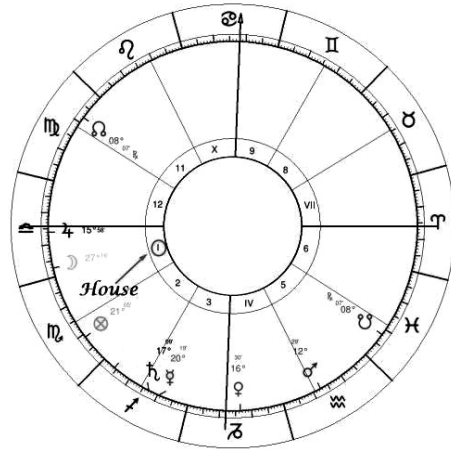
도 2. 라후 - India, 8-9세기 [Uttar pradesh Government Museum]

계 무시무시한 안색을 띠고 뱀의 몸에 핏빛의 눈과 목을 가지고 있다.⁹⁾ 머리만 있고 육체가 없는 라후는 항상 현세의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밤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을 하며 상징적인 색은 검정이다. 방위는 남서쪽이며 공기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특성은 연기(smoke)와 같다. 라후는 본질적으로 토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토성의 그림자라고도 불린다.

별점에서는 12궁의 별자리와 상응되는 12구역으로 나눈 하우스에 행

9) Prash Trivedi, The Key of Life: Astrology of the Lunar Nodes, USA ; Lotuspress, 2002, p. 22.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뱀처럼 표현되는 라후 상도 만들어지는데 이는 머리로 표현되는 라후와 하반신이 뱀으로 묘사되는 계도가 원래는 하나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성이 들어 있는 위치를 보면서 운명을 풀이한다(참고도판 1). 출생차트에서 라후가 好材로 작용을 하면 그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는 힘을 실어 주지만 모든 것을 악재로 몰아가는 힘 또한 강력하다. 라후는 각각의 하우스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제 1 하우스에 라후가 들면 피



참고 도판 1. 출생차트의 12하우스와 행성

부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제 2 하우스에서는 영향력 있는 웅변가를 의미한다. 제 8 하우스에서는 악성 질병과 연관되며 제 10 하우스에서는 경력, 명성, 권위를 상징한다. 라후의 성격은 하우스에 함께 든 행성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그 중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특징만을 추려보면 수성과 결합하면 역병, 수두와 같은 피부병을 유발하고 금성과의 결합은 비이성적인 성적욕망과 장애를 나타내고 토성과 만나면 통풍, 관절염 등을 일으킨다.¹⁰⁾ 라후는 간질과 천연두, 나병 등과 같이 피부질환과 관련된 전염병

10) 다음 표는 라후가 다른 행성과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행성	라후의 특성
태양	에너지를 빨아들임
달	초자연적인 경험, 불면증, 창의성
화성	가학적인 사고, 폭발적인 성향, 전쟁, 혁명적 지도자 / 종교적, 인종차별적 전쟁
수성	상상력, 혁명적인 아이디어/ 좌절감, 단조로움, 역병과 같은 피부병, 수두
목성	목성의 지식과 지혜는 라후의 본능에 의해 잘못 인식됨. / 종교적 영성, 연설가
금성	배우, 작가, 댄서, / 엘러지, 성적본능, 과도한 성적 욕망, 성적 장애
토성	투쟁, 실망, 좌절, 슬픔/ 통풍 관절염

을 퍼트리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는 특이한 성향을 보인다.¹¹⁾ 라후신앙에서 악재를 예방하고 소멸하기 위한 소재방법은 부적과 같은 기능을 가진 보석을 착용하거나 참기름, 심황과 우유, 꿀 등을 라후 형상에 灌頂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¹²⁾

8세기 전반 중국에서 찬술된 『梵天火羅九曜』는 구요의 형상과 달라니, 소재방법이 기록된 경전이다. 이 책에 묘사된 9요의 형상은 7-8세기 중앙 아시아에 이슬람 문화가 대거 전파되었던 영향을 반영하여 이슬람 성수도상의 특징이 습합된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¹³⁾ 『梵天火羅九曜』에는 라후가 直星이 되어 大凶이 드는 나이가 되면 재산이 흩어지고 구설에 휘말리거나 중병이 발생하는 악운이 따르니 공양물과 돈을 태우면서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하라고 하였다.¹⁴⁾

11) Komilla sutton, *Lunar Nodes-Crisis and Redemption*, UK: The Wessex Astrologer, 2001. pp. 7~13.

12) 인도에서 라후와 계도에게 기도하는 방법은 관정을 통한 공양으로 물과 참기름 등으로 造像의 먼지를 씻어내고 심황을 부은 다음 향기로운 sandalwood를 물어 타서 붓는다. 그리고 우유와 꿀로 관정하고 마지막으로 꽃과 천으로 장식한다. 라후의 옷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며 그 영향은 토성과 비슷하다(<http://www.puja.ne> 참조).

13) 마노에이지 외 지음·현승수 옮김,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책과 함께, 2009, 244쪽.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유입된 문화는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퍼져나갔는데 7~8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진전되면서 서서히 이슬람 문화 일색으로 변해갔다; 정진희,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22~24쪽 참조. 미술품으로 살펴본 중국 구요 도상의 변화는 6세기에는 인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슬람 문화가 전파된 시기가 지나면 이슬람 성수도상이 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4) 『梵天火羅九曜』(대정신수대장경, No.1311) ‘羅睺星以錢供養口決云向丑寅供之年一十,十九,二十八,三十七,四十六,五十五,六十四,七十三,八十二,九十一 并大凶行年至此宿者凶星隱而不見 一名羅睺 一名羅師 一名黃幡 一名火陽臨 人命憂官失位 重病相纏 財物破散喪服愁口舌 國王以神不祭至此宿修福攘之 元神錢畫所犯神形供養大吉云云’; ‘若行年到此宿 切須畫所犯神形 深室供養燒錢攘之 即災害不生 若遇惡星須攘之 諸不逆其所犯 即變凶成吉 不信即變吉成凶 遇吉星喜慶重重福德自在 遇惡星災害

구요 가운데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별인 라후의 형상을 지니고 공양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뀔 만큼 흥한 액운도 행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호응은 높아 부적을 만들어 행운을 비는 신행이 이루어졌다.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라후 부적은 64세의 토끼띠 여인의 본명성에 라후가 직성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소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¹⁵⁾ 부적 상부에는 상반신만으로 그려진 라후가 있고 그 아래는 소재방법이 쓰여 있다(도 3).¹⁶⁾

도 3. 라후부적 - 唐末五代 [British Museum]



競生 王侯犯之即謫官降職 但以亥時面向北斗 至心祭拜本命星 切不得向北小便折人壽命 宜思真念善獲福宜財。若不穰之災害競起； 鈕卫星，《梵天火羅九曜》考釋及其撰寫年代和作者問題探討，『自然科學史研究』24，2005. 중국에서 서역의 점성가에 의해 찬술된 이 경의 편찬 시기는 늦어도 751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 정진희,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46쪽. 삼도 18의 명칭을 〈수요와 라후〉라고 하였으나 계도를 라후로 잘못 표기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수정한다.

16) 부적의 표기내용 : 月朝月半燒香啓莫絕者自知 逢惡 急急如僕令 強百鬼遠離善神加力並不 病者能行日日消散歲歲昌 ■(身?)神星歡喜其人福至 星神放過赦罪德○(昭?)念 年拾至 羅候星神者命屬 卯生女人年六十四歲者○○(今?).

III. 처용의 설화와 전승기록

1. 신라시대 처용설화

처용의 전승기록 가운데서 원류라 할 수 있는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에서 처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49대 헌강대왕 때는 京師에서 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이때에 대왕이 開雲浦에 나가 놀다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은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有司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그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했다. 왕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개운포라고 하였다. 동해의 용은 기뻐하여 이에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사를 도왔는데 이름은 처용이라 했다.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처용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려 했으며 또한 ㉢급간의 벼슬을 내렸다. 그 처가 매우 아름다워 ㉣역신이 그녀를 흠모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함께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노래는 이렇다. ‘동경 밝은 달에 받들어 노니다가 집에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 이러라.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뉘 것이고. 본디는 내 것이다마는 앗은 것을 어찌할꼬.’ 이때에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녀를 범했습니다. 공이 이를 보고도 노여움

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㉔맹세코 지금 이후로는 공의 形容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國人)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이 서울에 돌아오자 영취산 동쪽 기슭 경치 좋은 곳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望海寺라고 했다. 또 新房寺라고도 이름 하였으니 곧 용을 위해 세운 것이다.¹⁷⁾

설화에 의하면 처용은 신라 憲康王이 재위 5년(879) 되던 해 지금의 울산인 개운포로 나갔다 만난 神人이다.¹⁸⁾ 처용의 설화는 헌강왕 5년(879) 3월, 왕이 동해안으로 순행하다 이방인을 만났다는 『삼국사기』의 기사와 공통점이 있어 신빙성을 더한다.¹⁹⁾ 『삼국사기』에서 처용의 무리를 용모가

17) 『三國遺事』 권제2, <기이>, <處容郎望海寺>,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於是大王遊開雲浦 在鵲城西南, 今蔚州. 王將還駕. 畫校勘 歇於汀过, 忽雲霧冥曠迷失道路. 恠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為龍剎佛寺近境. 施令已出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變無校人, 夜至其家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為理古. 時神現形跪於前曰, “吾美公之妻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校勘.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 置寺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為龍而置也.’(전각기호 ㉔~㉕은 <표 1>에서 다루었음).

18) 『高麗史』, 권71, 志 권제25, 樂2, 속악, 처용. ‘…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당시 사람들이 신인(神人)이라 여겼다. …;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 당대 이슬람 상인과 신라 -』, 『진단학보』 32, 1969, 20~25쪽. 처용이 출현한 개운포가 자리한 울산군은 <동국여지승람>에 장사를 좋아하는 풍속이 있을 만큼 국제 무역 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 『三國史記』, 권제11. 新羅本紀 第十一, 憲康王 五年 春三月 ‘三月, 巡幸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歌. 校勘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 古記謂, 王即位元年事; 설화에서 망해사의 다른 이름은 신방사로 사찰명으로 잘 사용되

해피하고 옷차림도 괴이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신라인들이 흔히 목격할 수 있었던 인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²⁰⁾

신라의 처용설화 내용에서 라후의 특성과 부합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의 내용과 라후의 특성 비교

	신라 처용설화의 내용	라후성신의 특성
1	㉠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음	천재지변과 연기를 만들어내는 일식신
2	㉡ 아름다운 아내를 처용에게 줌	여신인 금성과 관련된 라후의 성적인 능력
3	㉢ 정사를 도와 급간의 벼슬을 함	연설가로서 탁월한 능력 정치적 성향/ 강력한 통치력
4	㉣ 역신이 아내를 범함	잠든 사이에 범접하는 질병신의 특성
5	㉤ 네 개의 다리	獸帶人間에서 라후가 나타내는 부위
6	㉥ 역신이 물러남	역질을 다스리는 신성 피부와 관련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2. 고려가사 <처용가>의 처용과 라후

신라시대 이후의 처용의 기록은 기이한 외양과 가무에 중심을 두고 전승된다. 9세기 말 8구체 신라향가였던 <처용가>는 13세기 고려 고종

지 않는 방(房)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쓰였다. 이는 처용의 설화가 점성술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 할 수도 있다. 현강왕이 3월에 시작된 동해안 순행을 마치고 도읍으로 돌아와 절을 세운 시기는 28수(宿) 별자리 가운데 방수(房宿)가 뜨는 4월 초 즈음이었던 것 같다. 때문에 설화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28수 별자리 이름을 사찰명으로 차용한 한 것으로 추측된다.

20)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 당대 이슬람 상인과 신라 -』, 22쪽.

23(1236년)에 이르러 고려가요로 다시 만들어졌다.²¹⁾ 고려가사 <처용가>에서는 ‘天下大平 羅候德 處容아바’라고 처음으로 처용을 라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삼재팔난을 소멸하는 처용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 내용은 『악학궤범』 제5권,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前腔 新羅盛代昭盛代 天下大平 ①羅候²²⁾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호
시란디 以是人生에 相不語호 시란디(신라성대 밝은 성대 천하가 태평
한 것은 라후의 덕 처용아비여 이시인생에 상불어 하실진대 이시인
생에 상불어 하실진대)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호샷다(삼재팔난이 일시 소멸하시도다)

中葉 어와 아브즈시여 處容아브즈시여(어와 아버의 상이여 처용아비 상이
여)

附葉 ②滿頭插花계우샤 기울어신 머리에(만두삽화 계우샤 기우신 머리에)

小葉 아으 壽命長願호샤 넓거신 니마해(아으 수명장원하시어 넓으신 이마
에)

後腔 山象이슴 깁어신눈썹에 愛人相見호샤 오솔어신누네(신상 비슷 긴 눈
썹에 애인 상견하시어 온전하신 눈에)

附葉 ③風入盈庭호샤 우글어신귀예(풍입영정하샤 우글어진 귀에)

中葉 ④紅桃花 7티 붉거신 모아해(홍도화 같이 붉은 모양에)

21) 하태석, 「처용 형상의 변용 양상 - 처용전승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47, 2003, 367쪽. 전승의 주류에서 처용의 세속적 행적은 이탈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처용의 아내와 연관된 역신과의 일화도 고려 <처용가> 이후에는 사라진다.

22) 15세기 세종시대 역산학의 대가였던 이순지의 대표저서인 『諸家曆象集』에 羅睺는 羅候라고 기록되었고 칠정산 내편에서는 羅后로 있다.

附葉 五香마투 샤용기어신 고해(오향 맡으시어 우묵하신 코에)

小葉 아으 ⑤千金머그샤 어위어신 이베(천금 먹으시어 웃기신 입에)

大葉 ⑥白玉琉璃고티 히어신 닛바래 人讚福盛하샤 미나거신 특애 七寶 계
우샤 숙거신 엇게 예 吉慶 계우샤 늘어신 소맷길헤(백옥유리같이
흰 이빨에 인찬복성하샤 내밀은 턱에 칠보 겨우시어 늘이신 소맷길
예)

附葉 설미 모도와 有德하신 가스매(눈썰미 모아 유덕하신 가슴에)

中葉 福智俱足 하샤 부르거신 비예 ⑦紅靱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복지구족
하샤 부르신 배에 흥정 겨우시어 굽으신 허리에)

附葉 ⑧同樂大平 하샤 길어신 허뒤예(동락대평하샤 기신 허리에)

小葉 아으 界面 도르샤 넓거신 바래(아으 계면 들으시어 넓은 발에)

前腔 누고 지서 세니오 누고 지서 세니오 바를도 실도 어찌 바를도 실도어
삐(누가지어 세노, 누가지어 세노,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
이)

附葉 處容아비를 누고지서 세니오(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노)

中葉 마아만 마아만 하니여(未詳)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서 세온(십이제국이 모여 지어 세온)²³⁾

小葉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만 하니여(아으 처용아비를 마아만하니어)

後腔 머자 외야자 綠李야 빨리나 내신 고흘미야라(벗아 오얏아 녹리야 빨
리나 내신 코를 매어라)

附葉 아니웃 미시면 나리어다 머즌말(아니 곧 매시면 날지어다 구즌말)

中葉 東京 불근 두래 새도록 노니다가(동경 밝은 달에 밤이 새도록 놀다가)

23) '12제국'은 12정도, 12신성, 고대 천문지리에서 방위공간을 통칭하는 의미 등으로 선행연구에서 말하고 있다. 점성에서 몇 번째 하우스에서 라후가 어떤 행성과 만나는지 살피는 것은 운명풀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2제국은 12궁 별자리에 대응하는 12하우스를 의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附葉 드러 내자리를 보니 가루리 네히로새라(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가랑
이가 넷이로구나)

小葉 아으 들흔 내해 어머니와 들흔 뉘 해어 니오(아으 들은 내것이거니와
들은 누구 것이노)

大葉 이런 저귀 處容아비 옷보시면 熱病神이사 膾스가시로다 千金을 주리
여 處容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이런 적에 처용아비 곧 보시면
열병신이야 횃감이로다. 천금을 주랴 처용아바 칠보를 주랴 처용아
바)

附葉 千金七寶도 말오 熱病神를날 자바 주쇼셔(천금칠보도 말고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서)

中葉 山이여 미히여 千里外예(산이요 들이요 천리외에)

附葉 處容아비를 어여려 거져(처용아비들 비켜 가고자)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 샀다.(아으 열병대신의 발원이시도다)²⁴⁾

신라 설화에서는 보이지 않고 고려가사 <처용가>에 언급된 처용의 형
상 가운데 라후의 모습과 부합되는 표현들을 간추려 보면 ‘머리에 꽃을 꽃
아 기울어진 머리’, ‘붉은 얼굴’, ‘큰 입에 하얀 이빨’, ‘나이 들어 굵어진 혀
리’, ‘커다란 키’ 등이다. 이외에도 처용의 특징적인 용모와 관련된 고려의
기록들은 전해지는데 이제현은 시문을 통해 ‘처용노인 … 하얀 이貝齒와
붉은 입술’이라 하였고 성현도 ‘사람도 귀신도 신선도 아닌 시뻘건 풍만한
얼굴, 하얀 성긴 이, 귀밑머리에 꽃을 꽃은 모습’이라 했다.²⁵⁾ 아수라의 수
장이었던 라후는 분노의 형상을 띠기 때문에 용모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4) 이해구, 『신역 약학귀법』, 국립국악원, 2000, 5쪽, 334~338쪽.

25) 『고려사』 권71, 지 제25, 악2, <처용>, 李齊賢作詩解之曰, “新羅昔日處容翁. 見說來
從碧海中. 貝齒頰唇歌夜月. 鳶肩紫袖舞春風; 성현, <처용>, 『속동문선』 제5권, 칠언
고시(한국고전종합DB).

붉은 얼굴과 크게 벌린 입 속에 보이는 날카로운 이다. 허리가 길고 키가 큰 신체는 라후별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 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²⁶⁾ 처용이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 묘사되는 까닭은 라후와 같은 성질을 보이는 토성의 형상이 등이 굽고 수염과 머리가 하얀 노인이기 때문일 것이다.²⁷⁾

고려가사 〈처용가〉에 묘사된 처용과 라후의 형상적 특징을 비교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고려가사 〈처용가〉의 내용과 라후성신의 특징 비교

	고려가사 처용가의 처용	라후 성신의 특징
1	①羅候德 處容아바	처용을 라후라고 호칭함
2	②滿頭插花계오샤 기웁어신 머리에	뺨의 형상 머리카락의 순화된 표현(도1참조)
3	③風入盈庭 ㅎ샤 우글어신귀에 ④紅桃花 ㄱ티 붉거신 모야해	붉은 얼굴과 커다란 귀를 가진 분노존
4	⑤千金머그샤 어위어신 이베 ⑥白玉琉璃 ㄱ티 히어신 닛바래	태양을 삼키는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
5	⑦紅靽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 ⑧同樂大平 ㅎ샤 길어신 허투에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 표현되는 토성의 형상 기다란 허리를 가진 키 큰 사람

처용을 라후라고 언급한 대목과 더불어 특성이 유사함을 나타내는 부분은 버찌와 오얏과 같은 검은색 과일로 공양물을 올리는 것과 口舌과 관련된 ‘항상 말하지 않으면 삼재팔난이 소멸된다’, 그리고 ‘천금을 머금어’라는 돈으로 소재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법천화라구요』에 언급된 라후

26) Prash Trivedi, *The Key of Life: Astrology of the Lunar Nodes*, p. 22.

27) 치성광여래도에서 토성은 바라문 노승이거나 향로를 들고 있는 노인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려사』 세가, 권제1 〈왕창근이 도참이 새겨진 거울을 바치다〉에서 왕창근이 만났던 토성(填星)의 형상도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다.

의 특성과 부합되는 내용들이다. 고려대장경 『佛說熾盛光消災經』에 구요
진언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치성광여래와 구요를 신행했던 消災道場 설행
당시 구요 소재법식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소재도량 개설이
찾았던 시대적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고려가사에 불경에 언급된 라후
소재법이 묘사되어진 까닭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3. 조선시대의 처용

1493년에 발간된 『樂學軌範』
에서 〈處容冠服〉이라 畫題가 붙
은 그림의 주인공은 처용이다.
그림 속 처용의 모습은 각진 얼
굴에 코가 크고 둥근 귀걸이를
착용한 이국적인 노인의 모양새
이다. 머리에는 목단 꽃과 복숭
아 가지로 장식된 사모를 썼다
(도 4).³⁰⁾ 사모에 꽂은 복숭아 가
지는 역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이
다. 처용의 머리에 꽂혀 있는 장



도 4. 처용가면 - 1493, 『악학궤범』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8) 『佛說熾盛光消除經』, 고려대장경, K1171 v34, 2019년. 11월. 47일(<https://kabc.dongguk.edu>)

29) 조선시대 상소문에 소재도량은 “어떤 변괴이든지 佛事를 행하는데 이를 소재도
량이라고 한다.”라 하였을 만큼 고려시대 빈번히 개설된 불교의례였다. 『세종실
록』권23, 세종 6년, 3월 21일. “불교의 개혁에 관한 예문 봉교 양봉래 등의 상소
문” 참조.

30) 『악학궤범』 卷之九, 〈處容冠服〉. 처용무를 출 때 사용하기 위해 처용의 생김새와
복식의 색깔과 치수를 그린 그림과 만드는 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식은 인도 라후의 머리에 올려졌던 수많은 뱀의 머리 형상이 순화되고 도식화되어 마치 장식품과 같은 모양새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짐작된다. 실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造像으로 만들어진 라후를 보면 늘어진 기다란 귀에 송곳니가 돌출된 큰 입을 벌리고 머리에는 솟구쳤던 뱀의 머리 대신 꽃줄기와 같은 장식을 꽂은 예가 있다.

처용의 탈은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닌 머리 전체에 덮어쓰는 독특한 형태이다. 조선후기 턱이 길고 뾰족한 처용의 탈이 사용된 사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탈과 비교해 크기가 무척 크다. 연산군은 처용의 가면을 여자의 얼굴과 같이 가볍고 편하게 만들라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처용 가면이 무거워 사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³¹⁾ 처용무 · 영산회상을 대신하여 만들었던 『壽萬年詞』의 ‘꽃을 꽂은 머리는 무거워’라는 표현 역시 처용의 탈이 크고 무거웠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³²⁾ 처용 탈이 유달리 큰 까닭은 커다란 머리만으로 표현되었던 라후의 도상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초기 五方處容舞 이전 처용무는 검은 베옷에 사모를 쓴 한 사람이 추는 춤이었다.³³⁾ 처용이 검은 베옷을 입은 이유는 검은색이 라후의 색상이기 때문이었다.

〈처용가〉에서 라후의 덕으로 삼재팔난을 소멸하고자 하던 바램은 구요와 치성광여래의 가호로 악재를 소멸하고자 했던 소재도량의 개설 목적과도 부합된다. 때문에 처용무 후반에 불보살을 소청하는 부분이 삽입된 이유에 대해 성현은 ‘승도가 불공하는 것을 모방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바

31)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21일. “掌樂院提調李季全、任崇載啓. 處容象稱女面, 輕便造作事有命. 請令尙衣院匠人造作”

32)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바다에 사는 신선이 자연(紫烟)을 타고 와서, 비단 휘장 앞에 갈라서서 춤을 드립니다. 꽃을 꽂은 머리는 무거워서 천천히 돌면서, 삼가 임금님의 만년수를 드리웁니다.”

33) 성현, 『慵齋叢話』, 卷之一. ‘初使一人黑布紗帽而舞.’(한국고전종합DB)

로 사라진 고려 소재도량의 흔적 때문으로 사료된다.³⁴⁾

조선후기 처용의 전승기록은 풍속과 연중행사를 정리한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민속놀이 打芻戲라 불리는 제웅치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³⁵⁾ 제웅치기는 그 해의 나이가 羅睺直星에 든 사람들이 제웅(芻靈)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액땀 하는 풍습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투리로 처용이라고 한다. 『세시기』에는 “정월세시풍속으로 악소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라후를 친다.’고 말한다.” 하면서 라후는 별이름이라 풀어 설명하였다.³⁶⁾ 『한양세시기』에는 매년 초에 그 해의 운수를 점치는 流年直星法이라는 풍습을 소개하며 라후직성 뿐만 아니라 구요 모든 별에 해당되는 소재법을 기록하였다.³⁷⁾ 당시 사람들이 이를 독실하게 믿는다고 하였으니 19세기 까지 구요 점성신앙이 직성신앙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4) 『속동문선』〈처용〉, 제5권, 칠언고시, ‘初傲僧徒供佛. 群妓齊唱靈山會’

35) 홍석모 찬·최대림 역해.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1989, 44쪽; 『조선시대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7, 319~320쪽.

36) 『조선시대세시기』, 36~37쪽. 동전을 넣은 짚으로 만든 인형을 버리는 것을 ‘나후를 보낸다’라고 하고 이를 통해 액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송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37) 『조선시대세시기』, 156~157쪽. ‘일직성을 만나면 정월 보름날 붉은 종이를 둥글게 오려 싸리가지에 꿰어 지붕 용마루에 꽂고, 월직성에는 달맞이를 하고, 수직성을 만나면 용밥을 주고, 목직성은 목욕재개하고 동쪽으로 절을 하며 화직성은 옷깃 동정을 태우고, 토직성은 산에 올라 조를 부리며, 금직성은 태백성을 향해 절을 하고 계도직성은 버선모양의 종이를 올려 일직성을 만났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용마루에 꽂는다.’

IV. 九曜의 羅睺信仰으로 풀어본 신라의 處容

1. 처용설화 속의 라후신앙

처용설화에서 처용이 처음 등장하는 배경에는 갑자기 구름과 안개(霧)가 자욱해지는 기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양주동은 이 대목을 천재지변을 일으킨 일식신의 출현을 예고하는 암시적인 대목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는 연기(SMOKE)로 표현되는 라후의 특성을 자연현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시대 『壽萬年詞』에서 바다의 신선으로 묘사된 처용은 자색 연기(烟)를 타고 나타난다.

라후의 특징은 말과 관련이 있어 구설이 따르는 악재도 될 수 있지만 대중을 현혹하는 언변적 능력을 증폭시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연설가라는 의미도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라후의 기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처용이 급간이라는 벼슬을 살며 정치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은 라후의 호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능력을 설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비너스 즉, 금요가 라후와 관련되면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의미한다. 설화에서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가 역신과 함께 잠자리에 든 표현이 묘사된 이유는 금성과 라후의 운세풀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 보이는 다리의 묘사는 별과 인체를 대응시키는 獸帶人間을 나타낸 것이다. 의학과 점성이 연관되면서 12궁 별자리는 인체의 각 부분에 상응하여 특성을 나타낸다.³⁸⁾ 정강이와 발목에 해당되

38) 야노미치오, 전용운 옮김, 『밀교점성술과 수요경』, 126~129쪽. 별을 인체와 대응시키는 사과의 기원도 수대인간 zodiacal man이라 부르는 서양점성술에 있다. 서방에서 전해진 수대인간과 의점성술에 바탕을 두고 인도화되어 갔으며 신체부위에 12궁신을 대응시킨 것을 '카라 푸르샤'라고 부른다. 12궁과 신체를 대응시킨

는 별자리는 물병자리이고 물병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은 토성이기 때문에 라후 역시 다리를 지배하는 행성이다.³⁹⁾

우리나라에서 역신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보면 ‘마마’라 부르기도 하며 전염병 가운데 痘瘡과 浦倉을 옮기는 귀신을 지칭하고 특히 神鬼가 강하다.⁴⁰⁾ 라후가 제 1, 제 8 하우스에 들거나 혹은 하우스 내에서 수성과 연관되면 수두나 역병과 같은 피부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라후에게 공양하고 기도하면 이를 치료해주는 능력을 발휘하여 병을 낫게 해준다. 따라서 처용이 역신(疫神)을 물리치는 내용은 라후가 천연두와 나병을 제어하는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⁴¹⁾ 역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별을 신으로 승

수대인간에 영향으로 중국의 『칠요양재결』에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28수를 대응하여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39) 정창영, 『별들에게 물어봐 - 별자리로 이해하는 퍼스널리티 -』, 물병자리, 2003, 205쪽. 헬레니즘시대 유명한 의사들은 이 원리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했으며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발달하여 ‘의료천문해석학’라는 분야까지 생겨난다.
- 40) 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7, 人事篇1, 人事類2, “予等疫神徒 司痘瘡之病 予等亦元依此病死成疫神 此歲國人 始憂痘瘡…其中 痘瘡癘疫 偏以神鬼稱 故怪而辨其大略.”(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과 국역); 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고찰」, 『정신문화연구』 123, 2011, 129~130쪽. 두창의 최초 발원지는 인도가 유력한데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되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4~5세기경 대륙과 연결된 동북방향으로 두창이 유입되어 점차 남으로 퍼져 신라 성덕왕 36년(736)에는 신라로부터 대마도를 거쳐 일본까지 유행하였다.
- 41)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고찰」, 136~137쪽. 처용이 역신을 춤을 추어 물리친 사실에 대하여 체념, 패배, 인욕과 위협, 제압 등의 행위로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 왔었다; 이슬람 대표적인 의학자 라지(865-925)의 〈천연두와 홍역〉은 천연두와 홍역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한 최초의 의학서이기 때문에(정수일, 『이슬람문명』, 창작과비평, 2002, 227~228쪽, 참조) 처용을 이슬람의 의료기술을 사용했던 해양을 통해 도래한 이슬람인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이도흠,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24, 1994, 41쪽).



도 5. 天刑星圖 - 헤이안 시대 [26×39.2cm,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

배한 예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에서 천형성은 진언 밀교에서 재앙을 피하거나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성신으로 가마쿠라 시대에는 역병의 치료방법으로 천형성법 기도가 유행 하였다.⁴²⁾ 헤이안 시대 벽사의 신들을 그린 辟邪繪 (天刑星圖)는 네 개의 팔로 역병을 일으키는 우두천왕을 비롯한 귀신들을 잡아먹는 천형성의 모습을 그려 역병을 다스리는 성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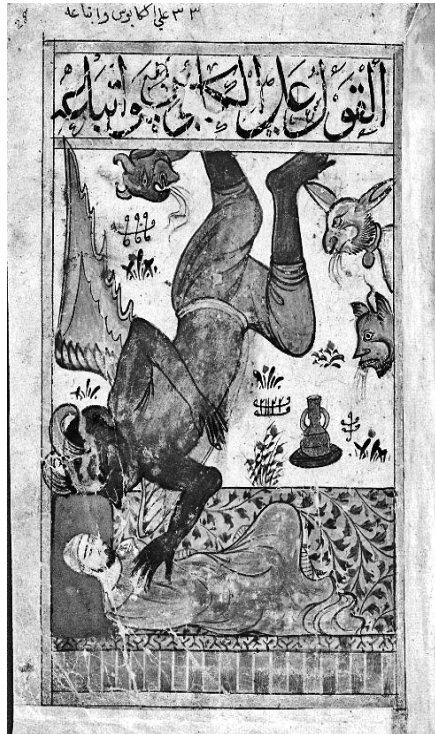
처용의 설화에는 구요신앙에서 볼 수 없는 용이 등장하고 神人の 구성도 9명이 아닌 8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슬람 점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도에서 라후와 계도는 2개의 별이지만 이슬람 천문에서 라후와 계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별로 일식과 월식을 만드는 알티닌(al-tinnin)

42) 奈良国立博物館, 『神仏習合 - かみとほとけが織りなす信仰と美 -』특별전 도록, 2007, 272쪽.

혹은 알조자르(al-Jauzahr)라 불리는 몸통이 매듭지어진 용으로 묘사된다(도 6).⁴³⁾ 잠 든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신이 범접하여 병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역시 이슬람 전통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14세기 후반 『Kitab al-Bulhan』라는 이슬람의 12궁 별자리와 점성에 관해 서술한 책의 삽도를 보면 질병을 퍼트리는 카부스라는 악마가 잠들어 있는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도 7).⁴⁴⁾



도 6. 알티닌(알조자르) - Muhammad al-Qazvini, 『Aja'ib al-makluqat』 삽도 부분, 15세기 초, Smithsonian.



도 7. 『Kitab al-Bulhan』 삽도 카부스 초상화 - 14세기 후반, 24.5×16cm,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43) Stefano Carboni, *Following the Stars: Images of the Zodiac in Islamic Art*,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7, pp.22~23; 이용범, 「處容說話의 一考察 - 당대 이슬람 상인과 신라 -」, 31쪽. 신라 설화에 등장하는 용과 龍子는 울산만에 나타난 선박과 탐승원의 출현을 扮飾하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4) 이도흠,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40쪽. 이라크 풍

처용에게 굴복한 역신은 처용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초하룻날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이는 것은 벽사의 염원을 담은 행위였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구요를 나타내는 조각이나 미술품은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상인방에 주로 모셔진다. 이는 구요성신의 수호아래 부정한 기운이 사라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용의 형상을 문에 거는 신라의 풍습과 유사하다. 설화에서 일식과 안개라는 천재지변을 사찰을 세우는 공덕으로 풀어내는 내용은 불교식으로 악재를 소재하고 다스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9세기 후반 신라에는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 전래되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었고, 점을 쳐서 불행한 점괘가 나오면 그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식 소재법을 이용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준다.

2. 신라의 구요 점성신앙 수용 배경

신라 향가 처용의 특징들이 이슬람 점성신앙과 관련을 보인다는 사실은 동해안으로 점성술을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던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 라후신앙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로 전해진 무슬림의 문화는 중국처럼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경로도 다양하였다.⁴⁵⁾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속도에서 여자 역신이 남자 인간을 범하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이슬람인인 처용이 신라에 와서 병을 고치는 행위가 처용설화로 신격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불가사의한 책이란 뜻을 가진 『Kitab al-Bulhan』는 Jalayirid Sultan Ahmad(1382-1410)가 바그다드에서 아랍어로 쓴 것을 다시 Al-Isfahani가 재편집한 것으로 별자리, 점성술, 신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5) 이도흠,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37쪽. 9세기 전반 신라의 조정에서 사치품으로 금했던 물건 가운데는 동남아를 비롯하여 인도, 아랍, 아프리카가 주산지인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나라와 신라의 해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와서 활약한 상황을 기록한 『쿠쉬나메』는 고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를 모은 책으로 사산조 페르시아와 신라와의 관계는 물론 신라에 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외국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⁶⁾ 9세기 중엽에 서술된 이븐 쿠르다드비의 저서 『제도르 및 제왕국지』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고 한다.⁴⁷⁾

중세 이슬람 역사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마쓰우디를 비롯하여 많은 이슬람 역사학자들은 신라를 이상향으로 표현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역사서에 남겼다. 이들 가운데 신라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첫 기록을 남겼던 사람은 쏘라이만 이라는 아랍 상인이었다. 서역의 구요신앙이 중국으로 전래되는데 상인들의 역할이 컸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눈여겨 볼 사실이다. 신라 상인들이 당과 신라, 일본의 교역을 독점하였던 9세기 전반에 비해 청해진이 폐지되었던 851년 이후가 되면 당과 일본 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장보고 피살 이후 신라의 상인들은 그 활동의 중심축을 明州, 溫州, 福州, 廣州 등 강남 지방으로 옮겨 활동을 했다.⁴⁸⁾ 때문에 중국 동남

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 흥덕왕 9년(834) 법령에는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서, 다만 신이하고 진기한 물품을 숭상하고 오히려 鄙野한 토산품을 경시한다.’라 하며 신분에 따라 사용가능한 물품과 금지물품을 기록해 놓았다(『삼국사기』, 권제33, 잡지 제2, 〈色服〉,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尚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46) 이도흠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54~55쪽; 이희수,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의 발굴과 신라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2010 참조.

47) 김창석, 「8~9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98쪽. 118~119쪽. 9세기 후반 도래한 무슬림 상인들의 희귀한 약재를 가지고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였던 역질을 치료한 사실을 가지고 후대에 사실 혹은 허구를 덧붙여 처용신화가 탄생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59쪽. 9세기 중엽 이후 17명의 무슬림학자에 의해 집필된 20여편의 이슬람 지리서, 역사서, 견문기 등에서 신라와 관련된 서술이 발견된다. 정수일, 『이슬람문명』, 219~220쪽 및 330~333쪽.

48) 박남수, 「圓仁의 歸國과 在唐新羅商人的 對日貿易」, 『한국사연구』 145, 2009. 참조.

부 해안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서역의 상인들도 신라상인들을 접하거나 신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⁴⁹⁾

중국에 거주했던 무슬림들의 이동에 관한 기록 가운데 처용과 관련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처용이 신라의 동해안에 출현한 비슷한 시기에 황소의 난을 피해 중국 광주지역의 무슬림들이 주변 지역으로 집단 이주한 사실이다. 874년 당나라 조정에 반기를 들고 황소의 난을 일으킨 무리들은 중국 각지를 돌며 조정의 군대를 격파하며 중국의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들은 878년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아랍-페르시아계 무슬림 상인들이 살고 있는 광주일대를 함락하고 이방인들을 10만 이상이나 살해하는 난리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많은 수의 무슬림들은 난리를 피해 중국의 인근 지역인 참파,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등으로 피신하였다.

광주 일대에 거주했던 무슬림들은 9세기 전반부터 신라 상인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 신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⁵⁰⁾ 중국의 항주와 양주지역에서 한반도 울산까지는 쿠로시오 해류를 이용하면 12일 가량 소요된다.

49)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청아, 2013, 32쪽 및 36쪽. 845년경을 기점으로 무슬림 상인들은 그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신라인들과 교역했고 그 이후에는 과감하게 신라로 직접 진출하였다. 당시 아랍의 공식 사절단은 당나라의 장안으로 파견되었고 장안을 비롯한 당 제국 곳곳에 작지 않은 규모의 무슬림 집단이 형성되었다

50) 김창석, 「8~9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116쪽, 875~884년에 걸친 황소의 난으로 인해 이민족에 대한 학살과 약탈이 자행되자 소그드인의 경우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로를 모색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36~37쪽, 54쪽. 황소의 난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슬림의 도피방식은 신분을 숨기고 중국사회로 숨거나, 동남아지역으로 피신한 경우가 있으며 신라로 이주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희수는 처용을 황소의 난을 피해 해로를 따라 신라로 찾아온 중국 동남부 출신의 무슬림 상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孝愍司空氏世譜』에 의하면 시조는 당나라 사람인 司空圖로 897년 황소의 난을 피해 신라로 왔다고 한다.

때문에 이븐 쿠르다드비의 책에서처럼 근거리였던 신라로 이주해와 수도였던 경주에 정착하여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⁵¹⁾ 처용의 설화는 879년 동해안을 통해 이주한 이슬람 점성을 실생활에서 사용하였던 무슬림들에 의해 전래된 라후 신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만든 설화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처용은 879년 신라시대 동해안 개운포에 나타난 이방인으로 역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신인이었다. 고려가사 〈처용가〉에서 묘사된 처용의 모습은 붉은 얼굴에 커다란 입, 허리가 굽은 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역병을 다스리는 처용의 능력과 특징적인 생김새는 점성신앙인 구요신앙에서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라후 성신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처용은 동해 용왕의 자식인 8명의 神人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데 이는 라후와 계도가 알티닌(al-tinnin) 혹은 알조자르(al-Jauzahr)라 불리는 한 마리의 용으로 표현되는 이슬람 성수신앙의 성신구성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처용이 신라에 당도하였던 879년은 중국 광주 일대에 살고 있던 무슬림들이 황소의 난을 피해 주변지역으로 이주했던 사건과 시간적 편차가 크지 않다.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신라의 처용설화를 구요 점성술

51) 윤명철, 「蔚山의 海港都市의 성격과 國際港路 - 신라와 관련하여 -」, 『한일관계사 연구』 38, 2011, 107쪽.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절강 이남지역을 출발하여 동중국해와 제주도해역, 황해남부를 거쳐 신라영토로 들어오는 항로로 연장되면서 남해안을 경유하여 울산항과 이어졌다. 이 항로를 이용하여 서역인들이 신라로 유입되었다: 신형식, 「신라와 서역과의 관계」, 『신라인의 실크로드』, 백산자료원 2002, 133쪽. 울산-흑산도-명주로 이어지는 남해항로가 개척되면서 서역인들이 이 항로를 이용해 들어왔다.

을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이방인들에 의해 한반도로 전해진 서역점성신앙을 은유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12궁과 라후와 계도성과 같이 서역천문에 관한 단편적인 이해들은 불교경전을 통해 7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불교 고대천문 관념이 간략히 소개된 것이었지 치성광여래신앙이나 처용신앙처럼 소재법식을 행하는 신행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서역 점성신앙의 한반도 전래라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었다. 처용이 개운포로 들어왔던 879년이 불교 구요신앙이라 할 수 있는 치성광여래 신앙이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9세기 중후반과 시간적 편차가 크지 않음은 이 시기를 즈음하여 서역의 점성신앙이 한반도로 전래되었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랄 수 있다.

왕의 명령에 의해 불교식으로 천재지변을 해소하는 처용설화의 내용은 라후신앙의 渡來 이전 불교 치성광여래 신앙이 신라에 전래되었음을 암시한다. 비록 전파된 경로는 달랐지만 이들 점성신앙은 신라로 유입된 이후 신라인들에게 익숙한 불교라는 종교적인 매체를 통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구요는 시대를 따라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도교의 구요도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구요 신앙은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히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로 전래된 구요는 처용의 전설과 전승기록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명맥을 잇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처용설화를 통해 서역의 점성신앙인 구요신앙의 전래를 풀이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신라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918년 후고구려 동주 발삼사에 있던 치성광여래와 구요 소상의 존재와 924년 왕건에 의해 구요당이 창건되어진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²⁾

끝으로 설화를 통해 역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글을 통해 처용의 정체성에 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찾고 싶다.

(2019.06.21.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52) 『高麗史』, 世家 권제1, <왕창근이 도참이 새겨진 거울을 바치다>; 『고려사』, 세가 권제1, 태조 7년, 9월. 본 논문에서 인용한 『고려사』,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역주를 이용하였음.

[Abstract]

Cheoyong, interpreted as a Navagraha's Rahu
–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Cheoyong –

Jung, Jin-hee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er of navagraha faith's Rahu to Korea through the legend and the record of Cheoyong. Rahu is one of nine stars in India's navagraha religion(九曜信仰). Rahu makes the solar eclipse. Cheoyong resembles Rahu's ability to create fog and heal the Measles. The year 879, when Cheoyong came to Silla, is similar to the time when the religion was Tejaprabha Buddha Fait introduced in China. The contents of the story to solve the problem in the Buddhist way by the command of the king. This indicates that there was a Tejaprabha Buddha Fait before Cheoyong came to Silla. In the year when Cheoyong came to Silla, Muslims fled to China to escape the war of Wangso(黃巢之亂). This fact indicates that Cheoyong has relations with the astrologers of the Gentiles who came to Korea in the late 9th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avagraha religion disappears from the process of passing along the age. However, through the legend and the record of Cheyung introduced to the Korean shows another aspect of navagraha fa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data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istorical records.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plain the existence of Tejaprabha Buddha

sculpture of later Goguryeo at the beginning of the 10th century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ounding of the Guyodang(九曜堂).

□ Keyword

Cheoyong, Rahu, navagraha, Astrology, Islamic Astronomy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三國遺事』 『三國史記』 『Kitab al-Bulhan』
『梵天火羅九曜』 『摩登伽經』 『五洲衍文長箋散稿』 『慵齋叢話』

2. 단행본

-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해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
양주동, 『여요전주 : 조선고가연구 속편』, 을유문화사, 1947.
이혜구,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_____, 『이슬람과 한국문화』, 청아출판사, 2013.
정수일, 『이슬람문명』, 창작과비평, 2002.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7.
정창영, 『별들에게 물어봐- 별자리로 이해하는 퍼스널리티』, 물병자리.
2003.
홍석모 찬, 최대림 옮김, 『신역 동국세시기』, 흥신문화사, 1989.
야노 미치오 지음, 전용운 옮김, 『밀교점성술과 수요경』, 동국대학교출판
부, 2010.
마노에이지 외 지음, 현승수 옮김,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책과 함
께, 2009.
奈良国立博物館, 『神仏習合 - かみとほとけが織りなす信仰と美 -』 특별
전 도록, 2007.

Komilla sutton, *Lunar Nodes-Crisis and Redemption*, UK; The Wessex Astrologer, 2001.

Prash Trivedi, *The Key of Life: Astrology of the Lunar Nodes*, twin lakes USA; Lotuspress, 2002.

3. 논문

김경수,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연구사」, 『한자한문교육』 15, 2005.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전승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유미,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창석, 「8~9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박종식, 정승석, 「navagraha개념의 융합적 전개」, 『佛教學報』 85, 2018.

신형식, 「신라와 서역과의 관계」, 『신라인의 실크로드』, 백신자료원, 2002.

윤명철, 「蔚山의 海港都市의 성격과 國際港路 - 신라와 관련하여 -」, 『한일 관계사연구』 38, 2011.

윤성현, 「〈처용가〉의 변전과 문화사적 의미」,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이도흠, 「처용가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24, 1994.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 당대 이슬람 상인과 신라 -」, 『진단학보』 32, 1969.

이희수,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의 발굴과 신라 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2010.

정진희, 「羅末麗初 熾盛光如來 信仰과 圖像의 傳來 - 『高麗寺기사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探究』 20, 2015.

_____,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하태석, 「처용형상의 변용 양상 - 처용전승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47, 2003.

허혜정, 「〈쿠쉬나베〉와 〈삼국유사〉를 통해 본 처용설화의 생성공간」, 『동서비교문학저널』 32, 2015.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고찰」, 『정신문화연구』 123, 2011.

钮卫星, 「《梵天火羅九曜》考釋及其撰寫年代和作者問題探討」, 『自然科學史研究』 24-4, 2005.

Stefano Carboni, “*Following the Stars: Images of the Zodiac in Islamic Art*”,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7.

인터넷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puja.ne>

<http://www.accesstoinight.org>

